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⑬

質直無僞 視聽尋常 則絶一塵而作對
질직무위 시청심상 즉절일진이작대
何勞遣蕩之功無
하로견탕지공무
一念而生情 不假忘緣之力
일념이생정 불가망연지력

또한 순박 솔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보고 들음에 무심하여 한 티끌도 상대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번뇌를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한 생각의 망령된 감정도 일어남이 없으니 반연을 잊으려 힘쓸 필요도 없다.

然煩濃習重 觀劣心浮 無明之力大
연장농습중 관열심부 무명지력대
般若之力小 於善惡境界
반야지력소 어선악경계
未免被動靜互換 心不恬淡者 不無忘
미면피동정호환 심불염담자 불무망
緣遣蕩功夫矣 如云六根攝境
연견탕공부의 여운육근섭경
心不隨緣 謂之定 心境俱空
심불수령 위지정 심경구공
照鑑無惑 謂之慧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행(觀行)은 약하고 마음은 들떠서,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적으며, 선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동요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연을 잊고 없애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육근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禪定)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합께 공해서 미혹됨이 없음을 비추어 아는 것을 지혜라 한다. 이것은 비록 수상문(隨相門:경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의 선정과 지혜이고, 점문(漸門)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만약 망상이 들끓거든 먼저 선정의 이치대로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서, 마음이 반연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계합하게 하며,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이젠 지혜로써 법에 따라 공(空)함을 관조하여 미혹됨이 없음을 비추어서 본래의 앎에 계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선정으로써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써 멍청함(無記)을 다스려서 동요함도 고

선악의 경계에서 동요하는 이는
반연을 잊고 없애는 공부하라

조감무혹 위지혜
此雖隨相門定慧漸
차수수상문정혜점
門劣機所行也 對治門中 不可無也
문열기소행야 대치문중 불가무야
若掉擧熾盛 則先以定門 稱理攝散
약도거치성 즉선이정문 칭리섭산
心不隨緣 契乎本寂 若昏
심불수연 계호본연 약혼
沈尤多 則次以慧門 擇法觀空
침우다 즉차이혜문 택법관공
照鑑無惑 契乎本知 以定治乎亂想
조감무혹 계호본지 이정치호난상
以慧治乎無記 動靜相亡 對治
이혜치호무기 동정상망 대치
功終 則對境而念念歸宗 遇緣而心心
공종 즉대경이염염귀종 우연이심심
契道 任運雙修 方爲無事人
계도 임운쌍수 방위무사인
若如是則眞可謂定慧等持 明見
약여시즉진가위정혜등지 명견
佛性者也
불성자야

그러나 업의 장애는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행(觀行)은 약하고 마음 요함도 서로 없어지고,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도 없으지면, 경계에 대하여 생각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반연을 만나도 마음마음이 도에 계합하는 등 마음대로 안팎을 닦아나가야 비로소 걸림없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져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한 말과 같다."

問據汝所判 悟後修門中
문거여소판 오후수문중
定慧等持之義 有二種
정혜등지지의 유이종
一自性定慧 二隨相定慧
일자성정혜 이수상정혜

물었다. "스님의 말씀대로, 깨친 뒤에 닦는 방법을 보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이고, 둘째는 상(相)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모든 사물 영원한 것처럼

운문스님 〈운문사 주지〉

약력
- 1928년 전남 장성 生
- 44년 망월사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 53년 해인사 전문강원수료
- 56년 여수 흥국사 주지
- 63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7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 66년 청소년교화연합회 창립
- 64년 불교동요집 발간
- 87년 제1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
- 90년 2월11일 제3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 현 서울 구기동 운문사 주석

아직도 한낮에는 무더운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아침 저녁으로 실감합니다. 제법 날씨도 쌀쌀해 졌고 가끔가다 쳐다보는 하늘이 한없이 높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날씨 탓인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락이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45년된 나의 찬불가 포교생활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불교 음악인들이 열어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제자가 되겠다고 출가한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달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45년동안 살아왔지만 그 발원을 잘 실천했는지 부끄러운 생각이 앞서기만 합니다.

내가 찬불가를 만들며 어린이 포교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28세때 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5년경으로 불교 정화직후였지요. 해인사선원과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종단에서 속가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가 포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사 도반스님들 4명과 함께 목포로 내려 갔습니다. 선방에만 있다 막상 목포 정혜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신도들을 접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극단적으로 절에서 불교를 하는게 아니란 생각이 든 겁니다. 모두들 정법과는 동떨어진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여간 고민 거리가 아니었지요. 신도들을 보내놓고 방에 앉아 곰곰히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중에서 배운 불교는 이런게 아니다 싶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시엔 노보살들이 신도의 주류를 이뤘던 때라 젊은이들은 거의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생각이 굳어져서 힘들고 앞으로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들인 어린이 새싹불자들부터 정법 포교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를 위한 찬불가 포교에 나선 계기입니다.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속에는 불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아직 잘 다듬어 지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있는 불성을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간직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5조 홍인(弘忍)대사도 어릴때부터 깨달음속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는 더도말고 30년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좀더 보완하며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는 틈날 때마다 어린이들에게 찬불가 이외에 공(空)에 대한 얘기를 예화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성인불자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지만 어릴때부터 자꾸 듣다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깨우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지요. 불교에서 공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상의 이치를 깨닫치 못하는 사람이 불자들중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만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實體)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공의 기본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모임으로 태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다가 마침내 인연의 모임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인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새싹불자 포교는 미래불사
'부처님 가르침 노래로 전하자'
45년동안 찬불가 만들기 매진

하지만 공을 잘못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허무는 공에 대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한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물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비극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선 잠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버리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찬불가 포교를 하기로 마음먹게 된 또 하나의 발단은 선방에서 참선과 공부를 하면서 부터입니다. 출가자가 불국토를 만들고 성불하기 위해선 참선과 염불을 하며 용맹정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불교를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인간에게도 모두 묻혀 있는 깨달음의 씨앗 즉 불성은 기도와 참선 또 감로법문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찬불가를 들고 부르는 일 또한 사찰에 나가 법문을 듣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신행 생활이지요. 찬불가는 다른 노래처럼 단지 멜로디가 좋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는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말씀이 녹아 흐르기 때문에 흥에 겨워 듣고 부르다 보면 어느새 법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불가를 열심히 만든 이유도 간단합니다. 목포 정혜사 인근 마을 어린이들을 모아 법회를 하는데 어린이들을 지도하려니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노래였어요. 그래서 가사를 쓰고 작곡가를 찾아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이법회라는 말이 생소했던 시절이라 처음에는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게임도 했지요. 또 경전에 나온 내용을 각색해 동화로 만들어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모이더군요. 인원이 많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포교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격식을 갖춘 찬불 노래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교수기법 상담기법 話術
오는 21C에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기법회를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성격이 좋고 화술이 능숙해야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 연수안내 ■
본원에서는 위 연수과정을 원하시는 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회원관리 : 정회원(매월 1회 모임) ※발표회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外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
· 회원모집 ·
도시가 갑갑하고
삶에 짜증스러움이 가득할때
청년불자산악회를 찾아 주십시오
청산에 들고 싶고
할배 돌부처의 말없는 미소를
만나고 싶으신분은
청년불자산악회를 찾아오십시오
청년불자산악회는
푸르른 산을 향해 갑니다.
청년불자산악회는
성불의 인연을 향해 갑니다
묵묵히 오르는 산행이
오롯이 가는 수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땀방울로
삼천배의 수행을 대신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에
부처님의 향기를 만납니다
무심히 발자욱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을 닮아 있습니다
어느새 부처님이 저기 계십니다
부산청년불자 산악회 창립 1주년 기념전치
▶일 시 : 불기 2543년 10월 21일 오후 7시30분
▶장 소 : 새마당예식장 2층
♣ 부산청년불자산악회 가입문의 ☎051)464-2020
♣ 통도사부산포교원 심경청년회 회원모집
붓다의 가르침, 진리의 추구, 삶의 행복
법회 매주(화) 저녁7시 ☎ 051)816-2241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 · 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과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게,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 남 불 교 대 학
053)474-8228
(http://www. cyberbuddha.or.kr)

스님께서 군종법사가 되고자 희망하십니까?
군승단은 장병을 사랑하고 포교에 원력이 크신 이 시대의 원광법사의 후예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선발일시 ●

원서 교부 및 접수	99.10.25 ~ 10.28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99.10.29(금) 14:00
면 접 장 소	육해공군 군승단
모 집 인 원	00명
신검 및 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문 의 처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 또는 군승단 (02)749-8646

● 응시자격 ●
■ 조계종 스님으로서,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2년 경과한 자
■ 조계종 스님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학사 이상)을 졸업한 자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관당시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자
불기 2543('99)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정 련
육 · 해 · 공군 군승단장 이희용